

## “ AI 시대 사회복지, 기술보다 인간 존중 원칙 앞서야 ”



아산재단 창립 49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은 ‘AI 시대의 사회복지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AI 시대의 사회복지 혁신’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로 창립 49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은 지난 1979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에 관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AI의 활용이 확대될수록 사람 사이의 공감과 관계 형성, 윤리적 판단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고도화된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인간 존엄’이라는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5년 아산재단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중 우수 연구자 3명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황광선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1주제 ‘AI 기반 사회복지의 윤리적 쟁점과 한계’, 김현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가 2주제 ‘복지행정의 AI 도입과 정책 성과 : 에스토니아와 영국의 복지 데이터 통합 사례 비교’, 오영삼 국립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3주제 ‘AI는 사회복지를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어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대외부총장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참가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 AI의 효율적 도입 필요


황광선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AI의 윤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책임과 전문적 통제 등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미국, 네덜란드, 호주, 한국 등의 AI를 활용한 복지행정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회복지를 AI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판단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현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 부처 간 장벽의 해소 방안과 한국형 AI 복지 시스템의 전략적 모델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출생신고와 함께 복지서비스가 바로 연계되는 중앙집중형 복지 데이터 체계를 갖춘 에스토니아의 사례와 여러 기관이 데이터 협정을 맺어 선별적으로 공유하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제도적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AI 복지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건”이며 “한국은 두 나라의 장점을 취해 기술 효율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혼합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복지의 원칙과 가치 정립이 선행되어야

오영삼 국립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윤리적 판

단과 정서적 교감이 필수적인 인간 고유 영역의 보존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발표했다. 오 교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현직 사회복지사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회복지사 업무의 88개 과업에 대한 AI 대체 가능성과 대체 희망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문서·조직관리 업무는 대체 가능성과 수용 태도가 모두 높았으나, 상담·관계형성 등 직접서비스는 대체 가능성과 수용태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교수는 “AI는 단순 대체가 아닌 자동화와 인간 보완이 동시에 작동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일괄 적용이 아닌 선택적·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효진 경상국립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오선정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AI,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기술 활용에 앞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복지의 원칙과 가치를 더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글 편집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참가자들이 함께 AI 시대의 사회복지에 대해 논의했다.